

초등,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초등 학부모가 6년 동안 물어야 할 것들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초등 선행, 어디까지가 이득인가

연립 아이가 벌써 중등 수학을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연산이 느린 아이, 정말 문제인가

속도와 이해를 가르는 법

초등 독서, 권수를 세지 마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읽는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왜 중등에서 무너지나

조기 영어의 착시

학원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까닭

중학교 가기 전 이것만

초6 겨울 점검표

34 · 차례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초등 선행, 어디까지가 이득인가 5
2. **02** 연산이 느린 아이, 정말 문제인가 10
3. **03** 초등 독서, 권수를 세지 마십시오 15
4. **04**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왜 중등에서 무너지나 20
5. **05** 학원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25
6. **06** 중학교 가기 전 이것만 30

CUBE

01 · 머리말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02 · 먼저 읽을 것

초등 6년의 지도

이 책은 여섯 편을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편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물음을 여섯 자리에서 되풀이해 묻습니다** — 「제도가 세지 않는 이 시기에, 3년 뒤·6년 뒤에 남을 것은 무엇인가.」

먼저 **제도가 언제부터 성적을 세는지**를 알아 두시면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고입에서 내신을 세기 시작하는 가장 이른 자리가 **중1 1학기**입니다. 초등 성적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등은 「**세지 않는 것을 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지 않는 것들 가운데 **중등에서 새로 만들기 어려운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책은 그것을 하나씩 짚습니다.

읽는 차례

편	무엇을 다루나	이 편의 물음
1	초등 선행	앞선 진도는 3년 뒤에 남는가
2	연산	느린 것과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나
3	독서	무엇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가
4	조기 영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안 남는가
5	학원 시기	언제 시작할 것인가
6	중학교 가기 전	초6 겨울에 무엇을 할 것인가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걸리는 자리부터 펴셔도 됩니다. 다만 **마지막 편(중학교 가기 전)**은 초6 겨울에 다시 한 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쓰임이 가장 큼니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갑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초등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에게는 없고, 있다고 하는 쪽은 지어내는 것입니다.

대신 숫자가 있는 것은 출처를 달고, 없는 것은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구분을 보아 주십시오. 구분하지 않고 섞어 말하는 자료를 조심하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03 · 먼저 사실부터

입시가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

「옆집 아이는 벌써 중등 수학을 끝냈대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급해지기 전에 **제도가 언제부터 성적을 세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고입에서 내신이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가장 이른 자리가 어디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부터 세는가
과학고	학교에 따라 중1 1학기 부터 (예: 인천과학고)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 중2 부터 (경기 기준)
영재학교	중1부터 지원 가능. 합격자 대부분은 중3

가장 이른 자리가 **중1 1학기**입니다. 초등 성적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하지만 **고입 전형에서 점수로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등에서 「입시 준비」를 한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이 「초등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지 않는 것 중에 3년 뒤를 가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반영 시점은 학교·지역마다 다릅니다.

04 · 왜 갈리는가

훔친 것과 아는 것의 차이

같은 초5 두 아이를 놓고 보겠습니다.

	A	B
초5~6	중2 과정까지 진도를 뺏니다	초등 과정을 느리게 봅니다. 틀린 것을 다시 풁니다
중1	배운 것이라 수업이 지루합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 집중합니다
중1 내신	안다고 생각해 실수합니다	또박또박 맞습니다
중2~3	진도는 앞선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진도는 뒤인데 안 흔들립니다

A가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갈림길은 「배웠다」와 「할 수 있다」를 같은 것으로 여긴 자리였습니다.

세 가지가 겹칩니다

처음 배우는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 낯선 것을 만났을 때 뇌가 가장 세게 붙듭니다. 그 한 번을 훔기로 써 버리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때 그 세기가 안 나옵니다. 진도를 앞서 나간 아이가 수업에 딴짓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미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은 묻는 것이 다릅니다. 초등은 「계산할 수 있는가」를, 중등부터는 「왜 그렇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초등 방식으로 중등 진도를 나가면 답은 맞는데 설명을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가 조금만 비틀리면 무너집니다.

빨리 나간 아이는 되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미 중2를 하는데 초6을 다시 보자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도가 앞설수록 되돌아가는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한 달 뒤에 같은 문제를 다시 풀려 보십시오.** 그때 풀리면 선행이고, 안 풀리면 훔은 것입니다.

05 · 그래서 무엇을

초등에서 쌓아 둘 것 셋

제도가 초등을 안 세니, 초등은 세지 않는 것을 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셋은 중등에서 새로 만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Q. 첫째 — 읽고 무슨 말인지 아는 힘

중등부터는 문제가 길어집니다. 수학도 국어 문제처럼 생깁니다. 조건이 세 줄이고 묻는 것이 마지막 한 줄인 문제가 흔합니다. **연산이 빨라도 문장을 못 읽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권수를 세지 마시고, 한 권을 두고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Q. 둘째 — 틀린 것을 다시 보는 버릇

초등에서 이 버릇이 안 들면 중등에서는 더 안 듭니다. 문제 양이 늘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수보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는가**를 물어 주십시오. 「몇 점 맞았어?」와 「어디서 틀렸어?」는 아이에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Q. 셋째 — 스스로 앉는 시간

누가 시켜야 앉는 아이는 중3에 무너집니다. 그때는 시킬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혼자 앉는 시간**을 만들어 두십시오. 길이보다 매일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는지보다 **스스로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흔한 어긋남도 셋입니다. **읽기**는 「끝까지」가 목표가 되면 눈으로만 넘깁니다. **오답노트**는 옮겨 적는 것이 일이 되면 다시 안 봅니다 — 아무것도 안 보고 다시 푸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앉는 시간**이 안 생기는 것은 대개 일정이 꽉 차서입니다. 하나를 빼야 생깁니다.

06 · 학년별로 · 점검표

초4·초5·초6은 할 일이 다릅니다

학년	여기에 무게를	이건 아직
초4	읽는 힘 · 노는 시간 · 연산의 정확도	선행. 지금은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초5	틀린 것 다시 보기 · 스스로 읽는 버릇	두 학년 이상 앞선 진도
초6	중1 과정 한 학기 미리 · 시험 치르는 법	특목고 대비 커리큘럼

초6 겨울이 첫 갈림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진도가 아니라 **시험을 처음 치르는 법**입니다. 초등에는 지필 시험이 거의 없어서 중1 첫 시험에서 아는 것도 틀리는 아이가 많습니다. 시간을 재고, 답안지에 옮겨 적고, 틀린 것을 고치는 과정을 한번 겪게 하십시오.

이번 학기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한 달 전에 배운 것을 **지금 다시 풀 수 있는가**
- ☐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가** — 답만 확인하고 넘기지 않는가
- ☐ 하루에 **스스로 읽는 시간** 이 있는가
- ☐ 읽은 책에 대해 **자기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 ☐ 「몇 점 맞았어?」 보다 「**어디서 틀렸어?**」 를 더 자주 묻는가
- ☐ 옆집 아이의 진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 ☐ 학원을 **놀리는 것** 으로 불안을 달래고 있지 않은가
- ☐ 아이가 **쉬는 시간** 이 하루에 있는가

여덟 개 중 다섯 이상이면 방향이 맞습니다. 셋 이하라면 진도를 늘리기 전에 이쪽부터 손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에서 학원을 여러 곳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곳에서 제대로 하고 남은 시간에 읽고 놀리는 편이, 세 곳을 돌며 다 훑는 것보다 3년 뒤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07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그럼 선행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한 학기 정도 앞서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 이미 한 번 본 것이면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수업 태도를 바꿉니다.

문제는 **두 학년 이상** 앞서 나갈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훔기**가 됩니다. 그리고 훔은 것은 학교 진도가 따라왔을 때 **「안다」**는 착각으로 남아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기준을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진도를 한 달 뒤에 다시 풀 수 있으면 계속하시고, 안 풀리면 속도를 줄이십시오.**

Q. 영재교육원을 다니면 특목고에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영재교육원 교육·수료 사실을 기재하면 **감점 또는 0점 처리** 대상입니다.

실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스펙」**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전형에서 가점 요소가 아니고, 적으면 불이익이 있는 항목입니다.

고입은 **중1부터의 내신과 중3의 서류**로 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초등에서 앞서는 것은 **진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진도는 중등에서 따라잡히지만, 습관은 따라잡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과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학교의 최신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08 · 숫자부터

느린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애는 연산이 느려요. 학습지를 더 시켜야 할까요.」

가장 자주 받는 초등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느린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처방이 정반대인데, 가르치 않고 양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초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해마다 내는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학교급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초등학교	84.4%	43.3만 원
중학교	73%	46.1만 원
고등학교	63%	49.9만 원

초등학교의 참여율이 고등학교보다 높습니다. 84.4% 대 63%입니다. 가장 급하지 않은 시기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중3 수학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49.6%, 기초학력 미달이 14.9%입니다. 초등에 많이 하는 것이 중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물음이 바뀝니다. 「얼마나 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시킬 것인가」입니다. 연산이 느린 아이에게 연산을 더 시키는 것이 답인지부터 보십시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리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은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09 · 무엇이 다른가

느린 데는 세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연산이 느리다」는 한 가지 증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까닭은 셋입니다.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까닭	이런 모습	해야 할 것
안 외웠다	구구단·덧셈이 매번 세어서 나옵니다	외우는 것 — 양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없다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못 합니다	되돌아가기 — 양은 안 들었습니다
조심스럽다	맞기는 다 맞습니다. 느릴 뿐입니다	대개 그냥 두어도 됩니다

셋째 경우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느린데 **정확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성향입니다. 이 아이에게 속도를 재촉하면 **정확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회복이 느립니다**.

중등 이후를 보면 이 성향이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등 수학은 「왜 그렇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이 그때 **값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둘째입니다

이해 없이 절차만 외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첫째(안 외웠다)와 비슷해 보여서 **더 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커집니다. **이해가 없는 채로 양을 늘리면 「모르는 절차」가 몸에 굳습니다**. 나중에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구분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공시 통계로 뒷받침되는 분류가 아닙니다.

10 · 가르는 법

집에서 십 분이면 됩니다

셋 중 어느 경우인지는 간단히 가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해 보십시오.

Q. 하나 — 시간을 재지 말고 풀려 보십시오

같은 문제를 시간 제한 없이 풀게 합니다.

다 맞으면 — 아는 것입니다. 속도만의 문제이거나 성향입니다. 이 경우 문제집을 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줘도 틀리면 —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양이 아니라 되돌아가기가 필요합니다.

Q. 둘 — 「왜 그렇게 했어?」를 물으십시오

답이 맞아도 물어보십시오. 설명이 나오면 아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면 외운 것입니다.

외운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구단처럼 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해야 할 것을 외운 경우입니다 — 받아올림, 분수의 나눗셈, 소수점 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으로 답하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중등에서 반드시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해 보시면 어느 경우인지 대개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느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 시험은 시간이 넉넉합니다. 느려서 손해를 보는 자리가 아직 없습니다.

속도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교부터입니다. 중학교 수학 지필은 45분에 20문항 안팎이라 한 문제에 두 분 남짓입니다. 그러니 초6 무렵까지 속도를 맞추면 늦지 않습니다. 초3·초4에 속도로 조급해하실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이 장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중학교 지필 문항 수·시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11 · 그래서 무엇을

차레와 점검표

차레	무엇을	왜
1	시간 없이 풀려 봅니다	속도인지 이해인지 갑니다
2	「왜 그렇게 했어?」를 물어봅니다	아는 것인지 외운 것인지
3	이해가 없으면 되돌아갑니다	양은 여기서 안 들립니다
4	이해가 있으면 그냥 듭니다	속도는 대개 따라옵니다

4번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어 있는 아이에게 문제집을 더 주는 것은 그 시간을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시간을 충분히 주면 맞히는가
- ☐ 틀리는 것이 계산 실수 인가 방법을 모르는 것 인가
- ☐ 「왜 그렇게 했어?」에 설명이 나오는가
- ☐ 구구단·기본 셈이 바로 나오는가 — 세어서 나오지 않는가
- ☐ 받아올림·받아내림을 설명할 수 있는가
- ☐ 분수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맞히는가
- ☐ 문제를 풀 때 불안해하지 않는가

여덟 번째를 꼭 보십시오. 속도를 재촉받은 아이는 계산할 때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실수를 늘리고, 실수가 다시 재촉을 부릅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문제집 한 권보다 값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을 늘리지 마십시오. 앞의 두 가지 확인은 집에서 십 분이면 하십시오. 그 결과가 「이해는 되는데 느리다」이면 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에서 속도로 앞서는 것은 중학교에서 대개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히지 않는 것은 이해와 습관입니다.

12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연산 학습지를 계속 시켜야 하나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구단이나 기본 셈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반복해야 붙는 종류이고, 자동으로 되면 나중에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자동으로 되는 아이에게 계속 시키는 것은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문장으로 된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편이 중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기준을 하나 드리면 — 같은 유형을 이미 맞히고 있으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틀리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Q. 또래보다 느린데 괜찮을까요?

초등에서의 속도 차이는 생각보다 뜻이 작습니다.

까닭이 둘입니다. 하나는 초등 시험이 시간을 넉넉히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등부터 묻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등 수학은 「왜 그렇게 되는가」를 묻는데, 빠른 것이 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보셔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난 학년 것을 지금 풀 수 있는가, 틀린 것을 다시 푸는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셋이 되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셋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속도를 올리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손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연산은 **빠른가가 아니라 아는가로 보십시오. 시간을 주면 맞는 아이**는 대개 괜찮습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입니다. 연산에 관한 구분과 대응 방법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3 · 숫자부터

읽는 힘이 무너지는 자리

「올해 100권 읽혔어요.」

뿌듯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묻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 「그중에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몇 권인가요.」 대개 여기서 답이 멈춥니다. 권수는 세기 쉬워서 세는 것이지, **재야 할 것**이라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힘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입니다.

과목	중3	고2	어떻게 움직었나
국어	64.5%	53%	내려갑니다
영어	60.5%	72.8%	올라갑니다
수학	49.6%	56.2%	올라갑니다

국어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국어는 **아무도 놓지 않는 과목**입니다. 수학과 영어는 중간에 놓는 학생이 많아 **남은 사람만 세어져 비율이 오르는** 면이 있는데, 국어는 끝까지 모두가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실제 사정에 가깝습니다.**

왜 내려갈까요. **고등학교에서 읽어야 할 글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낯선 분야의 긴 글을 정해진 시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고등학교에 가서 기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초등 독서가 값을 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만 **권수를 세는 방식으로는 그 힘이 안 붙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표본 중3·고2 25,992명 / 539개교 (표집평가). 국어 감소의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14 · 무엇이 다른가

읽은 것과 읽어 낸 것

같은 한 권을 읽어도 남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는 차이는 이렇습니다.

	권수를 세는 읽기	남는 읽기
목표	끝까지 넘기는 것	무슨 말인지 아는 것
모르는 말	넘어갑니다	멈춥니다
속도	일정합니다	들쭉날쭉합니다
끝난 뒤	다음 책	이야기합니다
고르는 법	권장 도서	궁금해서

「모르는 말에서 멈추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권수가 목표가 되면 모르는 낱말을 넘어가는 습관이 붙습니다. 한 쪽에 모르는 말이 서넛 있어도 줄거리는 대충 따라갑니다. 그래서 읽은 것처럼 보이고, 본인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이 중등·고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학습에 쓰이는 글은 낱말 하나가 뜻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가는 습관이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뜻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긋난 줄 모릅니다.

속도가 들쭉날쭉한 것이 좋은 신호입니다

잘 읽는 아이는 일정하게 읽지 않습니다. 쉬운 데는 빨리 넘기고 어려운 데서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이 조절이 읽는 힘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어떤 책이든 비슷한 속도로 읽는다면 이해가 아니라 눈으로만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은 저희 수업·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공식 통계로 뒷받침되는 구분이 아닙니다.

15 · 그래서 무엇을

세 가지만 하십시오

초등 독서에서 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셋이면 됩니다.

Q. 하나 — 읽고 나서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가장 값이 크고 가장 쉽습니다. 「무슨 얘기야?」 한 마디면 됩니다.

줄거리를 자기 말로 늘어놓을 수 있으면 읽은 것이고, 「재밌었어」로 끝나면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말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처럼 물으면 아이가 책을 피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물으셔야 합니다 — 실제로 궁금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Q. 둘 — 모르는 낱말에서 멈추게 하십시오

한 쪽에 모르는 말이 다섯을 넘으면 그 책은 아직 이릅니다. 그때는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한둘이면 좋은 자리입니다. 그 낱말을 찾아보고 넘어가면 어휘가 그렇게 늘어납니다.

어휘는 따로 외워서 늘리기 어렵습니다. 문맥 안에서 만난 낱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찾아보는 습관」이 어휘 교재보다 낫습니다.

Q. 셋 — 고르게 하십시오

스스로 고른 책을 더 잘 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장 도서 목록은 참고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목록을 채우는 읽기가 되면 앞의 둘이 다 무너집니다 —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식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고르게 읽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좋아하면 범위는 나중에 넓어지고, 싫어하면 넓은 좁든 안 읽습니다.

이 셋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대부분입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아이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16 · 점검표

권수 말고 이것을 보십시오

인쇄해서 **학기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아이의 읽기에 대해

- ☐ 읽은 책을 **자기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 ☐ 모르는 낱말에서 **멈추는가** — 그냥 넘기지 않는가
- ☐ 책마다 **읽는 속도가 다른가**
- ☐ 어려운 데서 **되돌아가 읽는가**
- ☐ 스스로 **고른 책** 이 있는가
- ☐ 다 못 읽은 책을 **덮어도 되는 분위기** 인가

어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 ☐ 권수를 **세고 있지 않은가**
- ☐ 독후감을 **과제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 ☐ 「무슨 이야기야?」를 **확인이 아니라 궁금함** 으로 묻는가
- ☐ 어른도 **읽는 모습** 을 보이는가

여섯 번째를 특히 보십시오. 다 못 읽은 책을 덮을 수 있어야 다음 책을 펴니다. 「시작했으면 끝내라」가 읽기를 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독서에는 학원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앞의 셋은 **집에서 하는 일**이고, 오히려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독서를 수업으로 만들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과제가 된 읽기는 **권수를 세는 읽기**가 됩니다. 돈을 쓰실 자리가 있다면 **아이가 고른 책을 사 주는 것**입니다.

17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만화책만 읽는데 괜찮을까요?

단계로 보시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화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글이 있는 만화는 어휘와 맥락을 실제로 다룹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면 문제가 됩니다. 만화는 그림이 뜻을 많이 담고 있어서, 글만으로 상황을 세우는 훈련은 덜 됩니다. 중등 이후에 필요한 것은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금지하지 마시고 옆에 두십시오.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의 같은 주제를 다룬 글책을 곁에 두는 식입니다. 끊는 것보다 넓히는 것이 잘 됩니다.

Q. 읽기 수준을 어떻게 맞추나요?

한 쪽을 펴서 읽혀 보십시오.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낱말이 한 쪽에 다섯을 넘으면 아직 이릅니다. 내용을 따라가느라 힘을 다 써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 쪽에 하나도 없으면 편하게 읽히기는 하지만 느끼는 것은 적습니다. 한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수준은 책마다 다르게 잡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분야는 조금 어려운 것도 읽어 냅니다 — 아는 것이 많으면 모르는 낱말을 문맥으로 넘깁니다. 관심이 곧 읽기 실력인 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읽기는 몇 권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한 권에서 무엇이 남았는가입니다. 가 백 권보다 정확한 잣대입니다.

「무슨 얘기야?」 한 마디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 결과입니다. 독서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저희 상담·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8 · 숫자부터

영어에 가장 많이 씁니다

「영어 유치원까지 보냈는데 중학교에서 무너졌습니다.」

드물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보내신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기 영어로 얻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갈라 두면,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과목	1인당 월평균
영어	13.1만 원
수학	12.8만 원

영어가 수학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고등학교(63%)보다 높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영어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3 영어 보통학력 이상이 **60.5%**, 고2에서 **72.8%**입니다. 고2가 높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중간에 놓은 학생이 빠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로 「**영어 유치원이 효과가 없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연구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많이 쓰면 그만큼 남는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입니다. 를 갈라 보겠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안 남는지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리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영어 유치원의 효과를 직접 켜 자료를 아님니다 — 두 통계를 나란히 놓은 것이며 인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19 · 무엇이 다른가

말하는 영어와 시험 보는 영어

조기 영어로 붙는 힘과 중등 이후에 재는 힘이 다릅니다. 둘 다 영어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조기 영어로 잘 붙는 것	중등부터 재는 것
무엇을	듣고 말하기 · 발음 · 거부감 없음	읽고 쓰기 · 문법 · 어휘
어떻게	많이 노출되면 붙습니다	따로 배워야 붙습니다
재는 법	대화가 되는가	지문을 정확히 읽었는가
남는가	안 쓰면 줄어듭니다	쌓이면 남습니다

「무너졌다」의 실체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가 중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 문법입니다. 말로 익힌 영어는 규칙을 몰라도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서」로 씁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험은 규칙을 묻습니다. 맞는 문장을 고를 수는 있는데 왜 맞는지 설명을 못 하면 조금만 꼬인 문제에서 흔들립니다.

둘 — 어휘의 결이 다릅니다. 생활 영어의 어휘와 학습·시험 영어의 어휘는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말은 유창한데 지문이 안 읽히는 상태가 여기서 나옵니다.

셋 — 안 쓰면 줄어듭니다. 초등 고학년에 노출이 끊기면 듣고 말하는 힘부터 빠집니다. 그러면 「했던 것」은 줄고 「안 한 것」은 그대로인 채로 중학교를 맞습니다.

정리하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재는 자가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장은 저희 수업·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공시 자료나 연구로 뒷받침되는 인과가 아닙니다.

20 · 그러면 헛것인가

남는 것과 안 남는 것

아닙니다.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남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다음 계획이 쉽니다.

남는 편	잘 안 남는 편
영어를 위한 거부감이 적은 것	어릴 때의 발음
듣는 귀 — 오래 갑니다	쓰지 않은 회화
영어로 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배운 표현 자체

왼쪽이 값이 큼니다. 특히 첫째 줄입니다. **영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중·고등 6년 내내 작동합니다. 영어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은 그 과목을 피하다가 격차가 벌어지는데, 거부감이 없으면 그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 영어는 「**실력을 미리 쌓는 것**」 보다 「**문턱을 낮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중등에 필요한 것을 따로 쌓으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갈림길입니다

영어 유치원의 이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 붙이지 않으면 끊깁니다**. 초등 3~4학년쯤부터 **읽기와 어휘**로 무게를 옮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회화 수업을 계속 이어 가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아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등에서 재는 것은 그쪽이 아닙니다**. 회화를 유지하되 **읽기를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아이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21 · 그래서 무엇을

차레와 점검표

언제	무엇에 무게를	이건 아직
초1~2	듣기 · 거부감 없애기	문법 · 시험
초3~4	읽기로 무게를 옮깁니다 · 어휘	본격 문법
초5~6	문법의 뼈대 · 긴 글 읽기	수능 어휘
중1	시험 치는 법 · 서술형	—

초3~4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읽기로 옮기지 않으면 조기 영어의 이득이 중등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영어로 된 글을 혼자 읽는가 — 들려주는 것 말고
- ☐ 모르는 낱말을 찾아보는가
- ☐ 읽은 것을 우리말로 설명 할 수 있는가
- ☐ 문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규칙으로 설명 할 수 있는가
- ☐ 영어로 써 본 적 이 있는가
- ☐ 영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 ☐ 노출이 끊기지 않았는가
- ☐ 회화만 하고 읽기는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와 넷째가 중등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말은 되는데 이 둘이 안 되면 지금 손보셔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시작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쓴 돈을 아까워하며 같은 것을 계속 이어 가지 마십시오. 영어 유치원에 쓴 비용은 이미 지난 일이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같은 방식의 수업을 이어 가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얻은 것(거부감 없음·듣는 귀)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것(읽기·어휘·문법)을 새로 더하십시오. 그리고 읽기는 집에서도 많이 됩니다.

22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지금이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저희는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효과를 직접 켜 믿을 만한 공개 자료가 저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말하는 쪽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다만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 영어로 잘 붙는 것은 듣기와 거부감 없애기입니다. 이 둘은 영어 유치원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 꾸준한 노출이면 됩니다. 영상, 책, 짧은 대화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물음은 「영어 유치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만한 비용을 들일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그 이유만으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중등 이후에 재는 것은 그때 따로 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문법은 언제부터 하나요?

초5~6 무렵이 무난합니다. 다만 「문법책을 푸는 것」과 다릅니다.

너무 이르면 규칙만 외우고 뜻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영어가 아니라 문법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시작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왜 여기는 이렇게 써요?」라고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읽는 양이 쌓이면 규칙이 궁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설명하면 잘 붙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읽기가 먼저, 문법이 나중입니다. 읽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문법을 하면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조기 영어가 만드는 것은 실력의 선행이 아니라 문턱의 낮춤입니다. 초3~4에 읽기로 이어 붙이면 그 값이 중등까지 갑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입니다. **영어 유치원의 효과를 직접 켜 자료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내용은 저희 수업·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이나 특정 선택의 우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23 · 숫자부터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많이 합니다

「다들 벌써 학원을 다니던데, 저희만 안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초등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다들」이 맞습니다. 숫자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러니 보내야 한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학교급	참여율	참여 학생 월평균
초등학교	84.4%	51.2만 원
중학교	73%	63.2만 원
고등학교	63%	79.3만 원

초등학교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84.4%로, 고등학교 63%보다 21.4%p 높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먼 시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돈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 참여 학생 기준 월 79.3만 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는 뒤에 있고, 참여는 앞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물음을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시작할 것인가」가 아니라 「6년 뒤에 힘이 남아 있게 하려면 언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24 · 무엇이 다른가

학원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학원이 **확실히** 잘하는 것이 있고 **구조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이니 이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갈라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학원이 잘하는 것	학원이 못 하는 것
무엇을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기	스스로 앓는 습관 만들기
	진도를 끌고 가기	궁금해하는 마음 만들기
	시험에 맞춰 정리하기	노는 시간에 붙는 것들

왼쪽은 학원이 훨씬 잘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입니다. 필요할 때 쓰시면 확실히 값을 합니다.

오른쪽은 구조상 어렵습니다. 학원은 정해진 시간에 시켜서 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앓는 습관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라 시키는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른쪽이 없는 상태에서 왼쪽을 오래 하면 「시켜야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중3·고등에 가면 시킬 시간 자체가 모자랍니다. 과목이 늘고 양이 늘어 혼자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중3 수학 보통학력 이상이 49.6%입니다. 초등 참여율이 84.4%인데도 그렇습니다. 초등에 오래 다닌 것이 중등의 결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사교육비조사(2025),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원의 역할에 대한 구분은 저희 판단입니다.

25 · 언제 시작하나

시기가 아니라 신호로 정합니다

「몇 학년부터」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Q. 하나 —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갈 때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학교에서 모르고 넘어간 것이 쌓이면 **다음 단원이 통째로 막힙니다**. 수학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는 **미루지 마십시오**. 비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메우는 비용이 커집니다**.

다만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학원을 고르실 때 이것부터 물으십시오.

Q. 둘 — 집에서 가르치다 사이가 나빠질 때

흔하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면 **모르는 것에 화가 납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부 때문에 관계가 상하는 것은 성적보다 큰 손해입니다. 그럴 때는 **남에게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걸 **돈으로 관계를 사는 것이고, 값을 하는 지출**입니다.

Q. 셋 — 중학교 진학이 가까울 때

초6 겨울은 대부분의 아이에게 합리적인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학교는 **재는 방식이 바뀌는 곳**입니다 —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이 모자라고, 부분 점수가 없어집니다. **이건 겪어 봐야 늘고, 혼자서는 겪어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때도 필요한 것은 **진도가 아니라 「시험을 한 번 치러 보는 것」**입니다. **중1 진도를 두 학기 빼는 것보다 시험을 두세 번 겪는 것이 첫 학기 성적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 신호가 없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남들이 하니까**」입니다. 그건 신호가 아닙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아이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26 · 그래서 무엇을

정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신호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아직입니다
2	있으면 그 과목만 시작합니다	전 과목이 아닙니다
3	혼자 하는 시간이 남는지 봅니다	안 남으면 줄입니다
4	석 달 뒤 다시 봅니다	계속할지 정합니다

3번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학원이 늘면 혼자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루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등 이후에 실제로 실력을 만드는 것은 혼자 하는 시간입니다. 학원은 그 시간을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한 번 시작한 학원은 관성으로 이어집니다. 석 달마다 「이게 지금 필요한가」를 물어보십시오. 필요가 끝났는데 계속 다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고 있는가
- ☐ 집에서 봐 주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가
- ☐ 지금 아이에게 혼자 하는 시간 이 있는가
- ☐ 학원을 더하면 그 시간이 남는가
- ☐ 아이가 쉬는 시간 이 하루에 있는가
- ☐ 「남들이 하니까」가 이유의 전부는 아닌가
- ☐ 그 학원이 진도 를 나가는가 구멍 을 메우는가
- ☐ 석 달 뒤에 다시 볼 계획 이 있는가

여섯 번째가 「그렇다」이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남들이 시작한 시점이 내 아이에게 맞는 시점일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에서는 학원을 늦게 시작하실수록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곳은 일찍 오실수록 좋습니다. 오래 다니시니까요. 그런데 6년을 버텨야 하는 일에서 초등에 힘을 다 쓰면 정작 필요한 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신호가 오면 그때 오십시오. 그때는 저희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신호가 없다면, 그 시간에 읽고 놀리시는 편이 3년 뒤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27 · 자주 묻는 것

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따라잡기 어렵지 않나요?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대개는 따라잡힙니다.

따라잡기 어려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 읽는 힘과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이 둘은 오래 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만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따라잡히는 것은 진도입니다. 초등에서 앞선 진도는 중등에서 대개 만납니다. 학교가 **모두에게 같은 진도를 다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하는 것이 따라잡히는 것인가, 안 따라잡히는 것인가.**」 진도라면 급하지 않고, 읽기와 습관이라면 지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엎것은 학원보다 집에서 잘 됩니다.

Q.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진지하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유**를 한 번 물어보십시오. 「**친구들이 다 가서**」가 이유라면 —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공부 효과로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더 싸고 덜 지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답답해서**」가 이유라면 —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스스로 필요를 느낀 상태라 **같은 수업에서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은 오래 갑니다.** 부모가 정해서 시작한 것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학원은 몇 학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왔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없다면 아직 아닙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입니다. 시작 시점에 관한 판단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이나 특정 선택의 우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8 · 숫자부터**중학교에서 갈리는 것은 수학입니다**

「중학교 가면 잘하겠지요.」

초6 겨울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저절로 잘해지지 않습니다. **초등에서 안 갈리던 것이 중학교에서 갑니다.** 그리고 갈리는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마다 전국 표본으로 채는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2025년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중3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국어	64.5%	—
영어	60.5%	—
수학	49.6%	14.9%

국어와 영어는 열에 여섯이 보통학력을 넘습니다. **수학만 절반이 안 됩니다. 49.6%** 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아이가 **14.9%**입니다. **일곱에 하나꼴**입니다. 작년 12.7% 에서 늘었고, 이 평가가 표집으로 바뀐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5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뜻있게 나빠진 항목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까닭은 단순합니다. **수학은 앞을 모르면 뒤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지난 단원을 놓쳐도 이번 단원을 읽습니다. 수학은 안 됩니다. 한 번 놓치면 다음 단원이 통째로 막히고, 그게 학기 내내 이어집니다. **중학교 3년은 그 격차가 벌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고2까지 가면 수학 보통학력 이상이 56.2% 로 다시 올라갑니다. 성적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많은 아이가 수학을 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표본 중3·고2 25,992명 / 539개교 (표집평가).

29 · 무엇이 다른가

초등 시험과 중학교 시험

초등에서 90점을 받던 아이가 중1에서 70점을 받습니다. 실력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재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셋이 달라집니다.

하나 — 범위가 넓어집니다

초등 단원평가는 한 단원을 봅니다. 중학교 지필은 **두세 달치를 한 번에** 봅니다. 앞부분을 잊은 채 시험장에 앉으면,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복습이 실력의 절반**이 됩니다.

둘 — 시간이 모자랍니다

초등에서는 시간이 남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45분에 20문항 안팎**입니다. 한 문제에 두 분 남짓입니다. 아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뒤를 못 풉니다. 「**풀 수 있다**」와 「**시간 안에 푼다**」는 다른 능력이고, 뒤엎것은 연습해야 생깁니다.

셋 —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서술형이 아니면 과정이 맞아도 답이 틀리면 0점입니다. 초등에서 「거의 맞았는데」로 넘어가던 것이 중학교에서는 점수가 안 됩니다. **계산 실수가 처음으로 성적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셋은 진도를 더 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겪어 봐야 늘어납니다.**

30 · 겨울에 할 것

진도보다 먼저인 것

초6 겨울에 학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중1 진도**입니다. 한 학기 정도 미리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 하면 위 셋이 그대로 남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차례	무엇을	얼마나
1	시험을 한 번 치러 본다 — 시간을 재고, 답안지에 옮기고, 틀린 것을 고친다	두세 번
2	초등 6년치 중 구멍난 단원을 찾아 메운다 (분수·비율·도형)	2~3주
3	중1 1학기 한 학기만 미리 본다	나머지

1번을 먼저 두는 까닭이 있습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치러 본 아이는 중1 첫 시험에서 **아는 것을 틀립니다**. 이름을 안 쓰고, 답을 밀려 쓰고, 한 문제에 십 분을 씁니다. 이걸 실력이 아니라 처음이라서 생기는 일이고, **한 번 겪어 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2번은 티가 안 나지만 제일 값이 큼니다. 중1 수학은 초등 분수·비율 위에 섭니다. 거기가 비어 있으면 중1 진도를 아무리 나가도 시험에서 무너집니다.

31 · 점검표

중학교 가기 전 열 가지

인쇄해서 초6 겨울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공부에 대해

- ☐ 시간을 재고 **시험처럼** 풀어 본 적이 있는가
- ☐ **분수 계산** 을 막힘없이 하는가 (통분·나눗셈까지)
- ☐ **비와 비율** 을 문장 속에서 알아보는가
- ☐ 도형의 **넓이·부피 공식** 을 외워 쓰는가
- ☐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맞히는가
- ☐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가** — 모른 채 넘기지 않는가

생활에 대해

- ☐ 알림장·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가
- ☐ 숙제를 **말 안 해도** 시작하는가
- ☐ 하루에 **혼자 앉는 시간** 이 있는가
- ☐ 잠자는 시간이 **일정한가**

공부 여섯 중 넷, 생활 넷 중 셋이면 준비가 된 편입니다. 생활 쪽이 셋 미만이면 **진도보다 그쪽이 먼저**입니다 — 중학교는 챙겨 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곳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초6 겨울에 학원을 늘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값이 큰 것은 진도가 아니라 「시험을 한 번 겪는 것」**입니다. 그건 학원을 세 곳 다녀도 안 생기고, 한 곳에서 두세 번이면 생깁니다.

32 · 자주 묻는 것

초6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중1은 시험이 없다던데, 그럼 중2부터 하면 되나요?

자유학년제로 **중1 성적이 고입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다」와 「안 해도 된다」는 다릅니다.

첫째, **학교에 따라 중1 1학기부터 내신을 세는 고입 전형이 있습니다.** 과학고 중에 그런 곳이 있으니 목표가 있으시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중1에 쌓지 않은 것은 중2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중1을 비워 두면 중2에서 두 배로 듭니다.**

Q. 중1 진도를 어디까지 빼 놓아야 하나요?

한 학기면 충분합니다. 1학기 과정을 한 번 훑어 두면 학교 수업이 낯설지 않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중1 2학기까지 미리 나가면 **학교 진도가 따라왔을 때 이미 「아는 것」이 되어** 수업에서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앞서 배운 것을 잊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초등 구멍을 메우는 데** 쓰십시오. 그쪽이 중1 성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중학교에서 갈리는 것은 **얼마나 앞서 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 비었느냐**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시 자료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과 고입 내신 반영은 지역·학교마다 다르니 확인하십시오.

33 · 닫으며

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초등에서 앞서는 것은 진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진도는 중등에서 따라잡히지만, 습관은 따라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